

인류세 시대 ‘생태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cological Archive’ in the Anthropocene

이경래(Lee, Kyong Rae)**

1. 들어가는 글
2. ‘생태 아카이브’ 구성을 위한 전제들
 - 1) 선행연구 분석
 - 2) 인류세와 아카이브의 관계성
 - 3) ‘생태 아카이브’ 개념
3. 생태 아카이브 구축 프레임, ‘리빙 아카이브’
 - 1)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이론 프레임
 - 2) 생태 ‘리빙’ 아카이브 구축 예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기록 사례
4. 나오는 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124).

**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강사(kyongrae@gmail.com).

■ 투고일: 2021년 03월 29일 ■ 최종심사일: 2021년 04월 05일 ■ 최종확정일: 2021년 04월 19일.

■ 기록학연구 68, 205-241,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8.205>

〈초록〉

이 글은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지구 환경 위기의 화두를 어떻게 기록학에 접목하고 생태 실천적 사유와 연결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환경 위기 상황을 일종의 아카이브 상수값으로 둔 기록학 논의를 독려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생태주의에 입각한 기록학의 질적 전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 글은 최근 서구 기록학 내 '그린 아카이브'에서 주장하는 친환경 기록관리의 개선책 마련 정도의 실용주의론을 넘어서고자 한다. 기록학과 생태주의적 패러다임을 이론적으로 접목하는 '생태 아카이브'라는 새로운 개념과 이의 인식론적 전환을 요청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록의 생태적 접근을 기록학 논의에서 발굴함과 동시에 최근 인류세 담론들이 강조하는 기록의 '생태주의적 전회(an ecological turn)'를 통해, 이 글이 강조하는 '생태 아카이브' 개념을 구체화한다. 이 연구는 '생태 아카이브'를 기록학의 보편적·이론적 프레임으로서 생태 '리빙'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개념으로 삼는다. 즉 생태주의적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이른바 기록 민주주의적 가치들, 즉 탈보관주의, 공동체 아카이브, 그리고 정서의 아카이브를 재해석하고 확장한다. 구체적으로, 인류세 비극의 중요한 현장이자 사례인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기록을 통해서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실제 적용의 방법론을 예시한다. 구제역 사례 분석은, 지구 생태전환에 조응하는 기록관리의 새로운 질적 전환을 모색함과 동시에 아키비스트와 생태 현장의 시민주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해나가는 생태 현장 실천의 기록화 작업을 함께 강조하기 위함이다.

주제어 : 생태 아카이브, 리빙 아카이브, 인류세, 생태주의, 생태 행동주의, 행동주의 아카이브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how to incorporate the topic of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called the "anthropocene" into archives studies and

connect it to ecological practical reasons. In order to encourage discussion of archival studies, which puts the environmental crisis at a kind of archive constant valu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quality shift in archival studies based on ecology. This article aims to go beyond the pragmatism of preparing improvements to eco-friendly record management, which is recently claimed by the “Green Archive” in Western archival studies. It calls for a new concept called ‘ecological archive’, which theoretically combines a more archives-based and ecological paradigm, and its epistemological transformation. Specifically, the ecological approach of archives is first discovered in the discussion of archival studies and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ecological turn” of archives emphasized by recent anthropocene discourses, the concept of “ecological archive” emphasized by this article is embodied. This study uses ‘ecological archive’ as a universal and theoretical framework for archives as a basic concept for building ecological ‘living’ archives. In other words, for the construction of ecological archives, we reinterpret and extend so-called democratic values for archives, i.e., post-custodianship, community archives, and archives of emotions. Finally, the records of foot-and-mouth disease killing burial sites, an important site and example of the anthropocene tragedy, exemplifies the methodology of the actual application of ecological living archives. The case analysis aims to seek a new qualitative shift in record management that adapts to global ecological transformation, while also emphasizing the documentation by archival activism in ecological field practices jointly organized by archivists and citizens.

Keywords : The ecological archive, The living archive, Anthropocene, Ecologism, Eco-activism, Archival activism

1. 들어가는 글

기후 온난화와 사막화, 대기 오염, 생명 종 소멸, 인수 공통 감염병인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 등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구 속 인류 생존의 문제가 화급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에 의해 지구의 생태 시스템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악화되는 지구의 새로운 지질학적 연령대, ‘인류세(anthropocene)’에 대한 학술적, 실천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류세’는 ‘인간(the anthropos-)'이 지구의 지배종이 되면서 지층에 퇴적된 인간 문명의 쓰레기더미가 그 특징이 된 지질학적 ‘시대(-cene; epoch)’를 이르는 비공식 학명이다(이광석, 2019, 25-26). 지구 생명에 대한 초창기 환경 논의는 단순히 지구 환경 보존의 문제나 공해를 야기하는 다국적 산업들의 지역 파괴와 ‘토목사업형’ 개발주의 비판에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점차 지구 인류의 생태위기가 극에 이르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환경 의제가 지구 행성 전체의 문제로 전화하면서, 지구 환경 문제는 ‘인류세’라는 지구 행성 전체의 문제이자 오늘 인류 파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지구생태 위기 사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인류세 현실에 반응한 학계의 움직임 또한 크다. 지구과학, 지질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 분과의 영토를 넘어서서 사회인문학 (생태맑스주의, 생태지리학, 기후행동주의, 포스트휴머니즘 등) 등 거의 전 학문 분과 영역에서 위기 대안 담론의 생산 논의가 크게 확장 중에 있다. 인류세 위기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지구 절멸의 재난 상황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대안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인문사회학 영역에서 인류세란 변수는 그리 큰 학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는 듯하다. 기록학 영역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렇다 할 인류세 위기 상황과 아카이브의 관계를 천착하거나 생태 대안의 구성과 관련된 기록학계의 개입 방식에 대한 논의는 크게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이 글은 인류세라는 시대적 화두를 어떻게 기록학에 접목하고 실천적 사유와 연결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인류세를 상수값으로 둔 아카이브 가능성을 논의함으로써, 인류세 위기 국면 기록학의 질적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려 한다. 이는 아키비스트의 일상 업무 속 환경친화적인 기록관리 관행의 개선만으로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즉 인류세라는 급박한 전 지구적이고 행성 전체의 생태위기에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기록학의 생태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환경친화적 기록관리 관행 개선에 관한 기록학 분과 논의들, 이를테면, ‘그린 아카이브(Green archives)’나 ‘그린 아키비스트(Green archivist)’에 대한 논의들이 존재해왔다(Abbey, 2012). 하지만, 그린 아카이브는 마치 일상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를 행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생태 재앙 시대를 마주한 오늘, 우리는 단순히 기록화 과정 속 탄소 배출을 절감하려는 소극적 ‘그린 아카이브’적 노력 이상이 필요하다. ‘그린 아카이브’가 급진적 ‘그린 뉴딜’ 등 생태 정책 프레임 없이는 개별적 차원의 리사이클 노력 정도에 머물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린 아카이브’ 너머 좀 더 생태 기록학적 관점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그린 아카이브’의 기록 관행의 친환경 개선을 넘어 ‘생태 아카이브’라는 새로운 개념과 이의 인식론적 전환을 요청한다. 즉 인류세 위기로부터 발생하는 생태 재앙과 재난 관련 사건과 기록에 대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기록의 생태적 접근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기록의 ‘생태주의적 전회(an ecological turn)’를 통해 생태 아카이브 개념에 접근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구 생태전환 프로젝트가 완전한 수준에 도달되기 전까지는 ‘생태 행동주의적’ 현장 실천의 기록화 작업을 강조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태 아카이브 개념의 구현을 위한 보편적·이론적 프레임으로서 생태 ‘리빙’ 아카이브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생태 리빙 아카이브를 기록학에서 이미 소

개된 세 가지 기록 민주주의적 가치들, 즉 탈보관주의, 공동체 아카이브, 그리고 정서의 아카이브를 통해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론 프레임에 대한 논의에 이어, 마지막으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기록 사례를 들어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실제 적용을 예시한다.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급격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구제역 전염병과 이로 인한 가축 살처분 현실은, 인류세 국면이 초래한 ‘폐기물 오염’ 문제와 더불어 생명 종의 무차별 대량살상이라는 비인도주의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생태 환경 기록은 그리 사회적으로 쟁점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도 인류세 시대 생태주의적 아카이브 방법론을 구제역 기록의 문제를 통해 유의미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

2. ‘생태 아카이브’ 구성을 위한 전제들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지구생태 문제를 기록학의 ‘외부’이자 물리적 ‘환경’ 조건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환경의 문제를 기록학에서 심각하게 수용했던 경우는 서구 기록 학계 내 지속가능한 ‘그린 아카이브’ 논의 정도일 뿐이다. 본 연구는 기록학계 내 생태 문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들을 크게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인류세 위기로 인한 지구 생태주의적 의제를 어떻게 기록학 내부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등 생태 실천적 지향과 연결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2장에서는 환경 생태와 기록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다룬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시작으로 해서, 인류세 국면 지구생태 위기와와의 관계성 속에서 기록을 사유하는 ‘생태 아카이브’ 개념을 제안한다.

1) 선행연구 분석

기록학 연구를 축으로 이른바 ‘생태주의’를 접목한 대표적 사례는, 캐나다 기록학자인 휴 테일러(Hugh Taylor)의 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는 1980년대에 이미 『아키바리아(Archivaria)』에 실은 한 논문에서, 자연 생태가 “오늘날 많은 우리(아키비스트-필자주) 작업의 배후에 놓여 있다”고 논평하였다. 테일러는 이제까지 자연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못했던 기록학계의 무관심을 지적하면서, 자연 생태와의 보다 세심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키비스트 스스로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기록관리 과정에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Taylor, 1984, 25). 꽤 이르게 자연환경에 관한 환기와 이의 기록학적 접목을 주장했던 테일러의 논의는, 이후에 기록학과 환경 문제의 교차 지점에 대한 유효한 논의 생성에 초석을 제공했다. 90년대에 이르면, 캔디스 로웬(Candace Loewen)이 이를 계승해 이른바 ‘환경 기록(environmental records)’의 가치 평가를 다루는 논문에서, 아키비스트들이 증거·정보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록의 “생존적 가치”, 즉 생명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록의 잠재적 생태 실천 능력을 적극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Loewen, 1991, 91). 비록 당시 그의 논의가 환경 기록의 평가에 한정된 것이긴 했지만, 환경 전반에 있어 기록이 지니는 잠재적 개입 능력을 상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환경 생태주의적 기록학 논의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아카이브를 일종의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파악하려는 에릭 무어(Erik Moore)의 논의로 좀 더 발전되었다. 무어는 아카이브의 생태 패러다임(archives-ecology paradigm)을 위한 전제로 기록관리에 있어 통합적 사고, 탈보관주의, 그리고 지속가능성 모델을 제안하였다(Moore, 2007). 아카이브에 대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최근 들어 급박한 지구생태 위기 등 인류세적 국면과 맞물리면서 특히 지구 속 생명의 회복탄력성(리질리언

스) 혹은 ‘지속가능성(Ehrenfeld 2008)’ 개념을 그 중심에 두고 전개되기도 한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특별보고서’는 1.5℃ 이상 기온 상승이 미치는 지구 파국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 절 이상 줄여야 하고, 2050년은 완전히 탄소 기반 지구경제를 벗어나야 한다고 진단하였다(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8). 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해외 기록학계는, 디지털 보존을 포함한 모든 기록 실천 영역에서, 이른바 ‘지속가능성’으로의 긴급한 전환을 요구하면서 ‘탄소 중립’ 아카이브 혹은 ‘그린 아카이브’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Henk, 2014, 4-5). 환경 논의를 기록학에 접목을 시도하려는 일부 연구자들은 좀 더 친환경 기록관리에 집중해 논의하는 쪽도 있었다. 가령, 친환경 기록관 건축물 선정을 비롯해 환경친화적인 문서(acid-free papers)를 사용한다거나, 통합 해충 관리, 습도 및 온도 조절과 같은 전통적인 기록환경 관행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논의들이 제기됐다(Mayer, Struble and Catsikis, 2015). 하지만, 이른바 ‘그린 아카이브’ 논의는, 지구온난화를 줄이고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로 기록관리의 실무와 일상 실천에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실용적 접근법이 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환경 실천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린 아카이브’의 시각에서 보면, 디지털 보존 또한 상당히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미치는 기술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기술의 해로운 기술적 환경 영향을 줄이는 보존 관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가령, 그린 아카이비스트들은 기존 시스템의 사용을 최적화해 효율을 높이거나, 고(高)에너지 작업의 경우에 기술 인프라의 탄소에너지 의존도를 낮춰 신재생 에너지원로의 전환을 제시한다(Linden, Reilly and Herzog, 2012; Padfield, et al., 2014; Brophy, Sarah S. and Wylie, 2008). 디지털 보존의 보다 최근 논의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보존을 위해 현재의 평가, 영구보존, 이용 가능성 등 영구기록 보존 관행의 재고를 촉구한다. 이를테면, 기존 보존기록을 형성하는 동기와 가정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영구보존에서 ‘영구’라는 단어가 가지는 절대주의와 이상주의를 비판적으로 보고자 한다. 더불어 영구보존이나 이용 가능성에 있어 손실 허용 범위를 정하는 등 보존 관행에서의 자연환경 요인을 고려한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한다(Pendergrass, Sampson, Walsh and Alagna, 2019). 더불어, 2020년에는 한 유력 해외 저널이 특집호 주제로 “인류세 시대 도서관과 아카이브 (Libraries and Archives in the Anthropocene)”¹⁾를 다루면서,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등 주요 기억 기관이 인류세 위기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테일러의 자연 생태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고려에 대한 강조에 이어 로웬의 최초 ‘환경 기록’ 주목, 에렌펠트의 ‘지속가능성’ 개념 제시, 그리고, 최근 ‘그린 아카이브’ 논의 등은 기록학계 내 생태 문제를 다룬 하나의 학적 흐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서구 기록학계는 이렇듯 생태적 관점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최초 논의에 이어 인류세 위기에 대응해 기록학의 지속가능성이나 ‘그린 아카이브’ 가능성 마련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문제는 이들 논의가 최근 들어 대체로 ‘그린 아카이브’ 논의에 좌우되어 기록 실무 환경 속 기능적 실천에만 주로 주목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보다 근원적으로는 지구 인류세 위기가 심각한 생명 절멸의 화두로 최근 부각되면서, ‘그린 아카이브’ 접근 너머 기록학 자체의 전환적 패러다임 구축에 대한 요청이 제기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생태주의적 아카이브’ 접근은 이로부터 제기된다.

국내 기록학계는 아직 서구의 생태주의적 아카이브 논의와 문제 제

1) Tansey, Eira and Rob Montoya, eds, (2020). Libraries and Archives in the Anthropocene. Special issue, *Journal of Critical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3(2).

기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도 이를 찾으려 한다면, 기록학계 내부 환경 문제에 대한 최근 논의로 설문원(2014)의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송전탑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 국면에 주요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생태주의 아카이브’를 정면으로 다룬 논의로 보긴 어렵다. 직접 관련이 있는 연구들로는, 이윤희·이영학(2017)의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를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과 비인간(특히, 동물)의 평등주의적 종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록학적 관점과 성찰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동물권 관점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후위기 등 인류세 생태 위기 전반적 국면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생태주의 아카이브의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 국내·외 기록학 연구의 생태주의적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그린 아카이브’ 논의에 멈춰있는 한계 상황을 넘어 새롭게 아카이브의 생태주의적 지향과 가치를 타진하고자 한다. 이는 저탄소 지향의 기록 효율화나 그린 아카이브 등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보여지는 기록 실무에서의 방법론적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본질적으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를 인류세적 서사와 연계시켜 검토함으로써, 인간 중심주의적 기록학 논의의 구도를 깨어 이를 보다 확장하고 넓히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인류세와 아카이브의 관계성

인류세 논의는 전례 없는 지구 행성 수준의 위기와 생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공통인식을 반영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인류세 징후들은 새로운 시대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달라진 인

간의 지위와 역할,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다시 고찰하고 재설정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따져보면 지금까지 인간의 배경으로만 치부해 왔던 비인간 종들과 자연 사물들은 이제 한꺼번에 행위자(agents)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더 이상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 이미 적극적 행위성을 갖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간은 비인간 종들과 늘 상호작용해 왔으며, 비인간 종의 반응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해왔다. 다만 우리 인간은 이를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적으로만 보고 무릇 인간 아닌 비인간 생명 종을 하찮게 여겨왔을 뿐이다. 인류세 위기로 인해 비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탈인간주의적’ 접근에 대한 요청은,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고 자연환경을 단순히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보았던, 우리 스스로를 예외적이고 특권적인 존재로 보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송은주, 2020). 인류세 국면은 생명 절멸의 위기의 신호이지만 동시에 인간 존재가 다른 생명과 평등주의적으로 호혜적 관계를 맺을 때만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팬데믹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예견된 비극적 결과라는 관측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즉 인간이 비인간 존재들과 환경의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연을 수탈하면서 그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인간도 지구생태를 규정하는 물질세계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는 ‘겸손한’ 생태주의적 관점이 필요하다. 인류세 위기 시대에는 ‘인간 너머의 접근(more-than-human approach)’을 통해 비인간 존재와 어떻게 인간의 평등주의적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김준수, 2019, 82).

인류세가 초래한 생태주의적 전환 필요성과 비인간 종과의 평등주의적 유대에 대한 시대 사명은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전례 없는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인간 활동의 역사를 기록화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제고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간이 기록화 과정에서 배제

했고 소외했던 이른바 ‘비인간’ 생명 존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운 의제로 떠오른다. 하지만, 인류세 논의 이전 ‘인간중심주의’와 ‘인간예외주의’라는 모더니즘적 근대 서사는 아카이브 서사에도 큰 예외 없이 적용되어왔다. 앞서 생태주의적 기록의 관점을 논의했던 로웬은, 인간중심주의가 작동하게 된 원인이기도 한 자연과 인간을 분리한 이원론적 세계관, 그리고 ‘자연의 객체(대상)화’와 이로 인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을 주창한 데카르트의 영향력을 인류의 불운으로 지적했다. 그는 데카르트적 세계관으로 인해 인간을 유일한 기록의 행위자이자 주체로 간주하면서, 비인간적 존재를 기록관리로부터 소외시켰다고 비판했다(Loewen, 1991, 91). 그는 인간중심주의로 인해 기록 관리에 있어 우주와 자연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이 붕괴되고 오히려 파편화된 인간 기록 부분만을 연구함으로써 자연에 대해 기계적인 인간주의 접근으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아키비스트에게 지구 행성은 항상 그대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 보존되고 남아있는 존재로 여겨졌고, 그 외 비인간 존재는 관심 밖이어서 이들을 기록하는 것이 인간의 집단기억을 기록하는 것에 비해 덜 중요하거나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전한 기록화 과정을 약화시켰다고 보았다. 결국 로웬은 아카이브에 생태 전체를 아우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기 위해선 생태주의 모델을 통합해 기록관리의 이론을 개선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데카르트적 이원론과 모더니즘에 기댄 아카이브 서사는, 인간중심(예외)주의 외에도 자본(중심)주의, 유럽(백인)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등 주로 지금껏 아카이브에서 지배계급의 권력을 강화하는 프레임으로 간주되었던 것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인류세적 아카이브 서사는 우선 지구의 생태위기에서 출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 중 너머 못 생명 전체를 위협하는 위협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인지의 비판적 문제의식을 제기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맑스주의 생

태학자 안드레아스 말름(Andreas Malm)과 알프 호른보리(Alf Hornborg)는 ‘인류세’라는 용어 대신 엄밀하게 보면 오늘의 지구 위기를 ‘자본세(Capitalocene)’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태 위기의 자본주의적 자연 수탈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냈다(제이슨 W. 무어, 2020). 더 나아가 페미니스트 이론가인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현재 생태계의 파괴는 자본주의적 발전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 자본주의는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보았다. 그에 이어 해러웨이는 자본의 문제와 함께 이를 넘어서려면 수탈로부터 못 생명들의 평등주의적 ‘친족’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해러웨이, 2015).

아카이브 역시 공공의 수요에 봉사하기보다는 역사를 통틀어 정부 권위에 의해 식민주의, 국가주의, 또는 지배권력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내러티브를 구성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대 초기 아카이브는 단지 유명인들이나 정부의 문서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해 왔다. 이를 통해 자본과 권력의 내러티브와 ‘남성중심주의’를 존속시키는 한편 기록관리 관행(평가와 조직화)을 통해 여성, 비유럽인, 가난한 약자들을 아카이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비스트의 작업은 종종 ‘중립적이고 가치 지양적인’ 보관소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중립성의 주장은 불평등과 백인특권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Almeida, Nora and Jen Hoyer, 2020, 13). 이처럼 인간중심주의를 비롯해서 자본주의, 유럽(백인)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등 모더니즘에 기댄 기록 서사는 인류세 국면에서 그 존재감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류세 위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더니즘 기록 서사를 넘어서 인간은 물론이고 못 생명 전체의 존엄을 살피는 생태주의 기록관리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생태 아카이브' 개념

'생태 아카이브(the ecological archive)'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우선 전제될 것은 기록의 생태적 접근이 과연 무엇일까를 따져보는 일이다. 일찍이 프랭크 업워드(Frank Upward)는 기록연속체론에서 아카이브는 아키비스트가 만들어낸 고립된 것으로, 완전한 전체가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아카이브를 사회 내의 한 장소로 간주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에서 발생하는 아카이브의 다중적 실체에 주목했다. 그는 아카이브가 처음에는 인간의 활동 맥락에 고착되지만 그 다음에는 활동 맥락에서 분리된다고 설명하면서 아카이브에 대한 생태주의적 시각을 견지했다(Upward, 1996, 57; Moore, 2007, 114에서 재인용). 쿡의 경우에는, 앞서 테일러의 생태주의적 기록학 관점이 캐나다의 토탈 아카이브 전통에 반영되었다고 보면서, 아카이브에서 정체성을 대변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피력했다(Cook, 1997, 34-43). 이들과 비슷한 최근 논의로는, 기록학에서 물성 중심의 전통적 '보존'의 개념을 재고하면서 기록을 중성 폴더에 보관하는 것 이상으로 그동안 아카이브에서 침묵당하고 배제되어온 소외된 생명 약자들의 목소리를 '보존'하는 행위에서 아카이브 보존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관점이 새롭게 제안되었다(Sheffield, 2016). 기록학의 생태적 접근은 기록을 인간이 남긴 것의 단순한 합 이상으로 간주한다. 즉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생명 종, 즉 인간 행위자들과 비인간 생명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성에 착목하면서, 후자까지도 포괄하는 기록 생태계의 통합적이고 다층적인 관계망들을 면밀히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 '생태 아카이브' 개념은 기록학 전통에서 제기된 생태주의적 접근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급박한 인류세 위기 국면에 조용하는 기록학의 생태 개입과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쓰인다. 인류세 국면에서

지구 환경과 생명 절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환경 기록에 대해 관련 사업장 기업들은 흔히 은폐를 도모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비공개 처리로 일관하는 불투명한 기록 행위에 익숙하다. 이는 환경 이슈와 관련된 기록들을 생태 통합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환경 기록의 투명한 기록화와 공개를 통해 환경 기록을 통한 현실 개입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시대 환경 재난의 아카이브는 '살아 숨쉬는' 개입의 공간으로서 '생태 행동주의적(eco-activist)' 관점과 연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생태 아카이브는 지구생태 위기로부터 가장 피해의 전면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소외되어 온 사회적·정치적 약자와 비인간 생명 종들에 주목하고 이에 연대하는 기록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생태 아카이브는 인류세 위기 국면 기록학의 생태 현장에 적극 개입하는 '행동주의 아카이브(Archival Activism)'와 이를 기후 행동과 생태 운동에 연결하는 '실천적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한다. 생태 아카이브는, 아카이브를 단순히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기록 보관의 정적인(static) 공간이나 동시대 사회적 기억의 구성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 수동적 역할을 거부한다. 이후에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 매년 산 채로 매장되어 비윤리적 방식으로 매립되는 동물들과 환경 위기로 인해 다치고 죽임을 당하는 생명들에 대한 기록은 지금까지 일회적이거나 망각의 기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치고 죽임을 당하는 생명들의 끊임없는 소환의 기록으로써 생태 아카이브는, 기록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나아가 현재 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미래의 생태 재난을 대비하도록 독려하는 환경 실천의 아카이브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생태 아카이브는 기록 철학적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이제까지 '인간중심주의'에 기대어 이뤄진 환경 기록의 관점, 생태위기에 놓인 범 생명 전체로 시선을 확장하는 일이 그 첫 수순이라고 본다. 이

는 ‘그린 아카이브’라는 기록 실무 방법론적 개선에서 보는 환경친화적인 접근을 넘어서는 일이다. 기록화 대상 영역에 있어서 범 생명을 아우르는 생태 주체의 체계적 확장이 필요한데, 이는 인간 중심의 전통적 기록 접근 철학을 넘어서야 하는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인류세 위기 속 환경 피해당사자로서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고통받고 희생당한 생명 일반의 존재론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 기록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구체적으로 언급될 규제역 매물 사례를 보면 이는 분명해진다. 보통 매장된 동물들은 우리의 시야에서 곧 사라지지만, 그 생명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유효한 재난 시간의 연속성 속에 놓여있다. 가령, 죽은 생명들은 땅속에서 혹은 그 썩은 일부가 흘러나와 그들 스스로 일종의 ‘트라우마’의 환경 기록을 남긴다. 부패해 썩고, 악취가 진동하고, 오염된 폐수로 흘러나오면서, 생명 매장이 일시적으로 자취를 감춘 듯 싶지만 그들의 흔적은 오래도록 주위 환경 생태에 부정적 효과를 드리운다. 이들은 일종의 사후 생명들이 울부짖는 트라우마의 징후들이지만 지금껏 기록 관리에서 이들 환경 효과를 기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생태 아카이브는 생태 재난에 사라진 생명들과 이들이 남기는 사후 트라우마의 기록도 그 구성항목으로 삼아야 한다.

한마디로 생태 아카이브는 기록관리에 있어 ‘생태주의적 전회(an ecological turn)’를 시도하는 일이다. 달리 말해 ‘생태 아카이브’란 단순히 신흥 학문적 조류만이 아니라 생태 기록의 정치학을 실천하기 위한 모색이다. 정리하자면, 먼저 생태 아카이브의 구체적 목표는 인류세 시대 감염병 등 재난과 재앙의 기록화 과정에 있어 정부 기록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즉 인간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매립된 동물과 생태 환경 그 자체의 목소리를 담은 기록을 통합하려는, 이른바 생명주의에 입각한 통합적 아카이브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둘째로, 인류세라는 지구 생태위기의 상황에 맞서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록

학 학문은 동시대 생태 현실에 대한 실천적 개입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생태 행동주의적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셋째로, 인간 활동 너머 비인간 종들, 즉 동물, 무생물, 사물 등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착목함으로써, 우리는 생태 문제에 대한 좀 더 포괄적 인식과 지평을 확보하며 이는 전통적인 기록관리 너머 다양한 비인간 존재와의 공생적 공감 능력을 획득하는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인류세 위기 국면 ‘생태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화 접근과 방법론은 이들 목표값을 정확히 세웠을 때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본다.

3. 생태 아카이브 구축 프레임, ‘리빙 아카이브’

인류세 시대 아카이브의 생태적 가치를 표방하는 생태 아카이브는 그 기록화 프레임으로 ‘리빙 아카이브(the living archive)’를 설계하도록 이끈다. 여기서 리빙 아카이브는 생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기록화 전통에서 추구되던 민주적 가치들을 재접목한 이론적 프레임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리빙 아카이브의 특징들로, 우선 초기 보관주의(custodianship)를 비판하면서 컬렉션의 올바른 소유권자에게로의 반환을 통해 불평등과 식민주의의 부정을 바로잡고자 한 ‘탈보관주의’가 강조된다. 둘째, 지배적인 역사적 내러티브에 도전하고 위계적인 거버넌스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접목한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전통적 아카이브 지향에서 감성적이고 내면적 가치지향과 더 나아가 고통에 대한 공감, 애도, 그리고 성찰까지도 포괄하는 ‘정서 아카이브(archive of feelings)’에 대한 논의를 적용한다(Cvetkovich, 2003). 이 장에서는 ‘탈보관주의’, ‘공동체 아카이브’, ‘정서 아카이브’, 이들 각각이 어떻게 생태주의적 기록화 방식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이를 갖고 어떻게 생명 약자 중심의 기록 이론적 프레임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이론 프레임

생태 아카이브의 구현을 위한 보편적·이론적 프레임으로 ‘리빙 아카이브’는 이미 기록학에서 아주 새로운 논의가 아니며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홀(Hall, 2001)은, 리빙 아카이브를 포괄적이고 결코 완성되지 않는 장소로 정의하면서, 아키비스트가 그곳의 ‘능동적인 참여자’임을 강조했다. 루디(Rudy, 2018)는 리빙 아카이브의 특징을 참여적이고 열려있는 것에서 찾았다. 보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케텔라르(Ketelaar, 2009)는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발생한 민족분규에서 국제 인도주의법을 위반한 개인을 기소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해 리빙 아카이브의 프레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리빙 아카이브는 공식 기록에 이의를 제기하고 논쟁하고 이를 통해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일종의 생성주의적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필자 역시 국내 과거사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과 관련한 개념 프레임으로 ‘리빙 아카이브’를 제안한 적이 있다(이경래 2015). 여기서 리빙 아카이브는 생성주의적이고 동시대 속에서 살아 숨쉬는 적극적 개입의 공간으로 정의된다. 결국, 리빙 아카이브는 ‘리빙’의 개념이 가지는 개방성과 생성주의적 확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카이브를 실천 개입의 공간으로 공통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생태 아카이브가 추구하는 생명 타자와의 접촉과 그들의 재난 기록에 대한 공감 등에 크게 동조할 수 있는 유용한 기록학 프레임이라 볼 수 있다.

인류세 환경 위기를 적극적으로 사유하는, 이른바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이론적 프레임은 그 세부 구성에 있어 다음 몇 가지 기록 이론이

주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탈보관주의’를 꼽을 수 있다.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탈보관주의’는 지금껏 보관주의에 입각한 기록 관리 방식이 생산자로부터 기록(물)을 분리시켜 아카이브에 보관함으로써,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적 맥락들을 제거하고 영원히 생산 환경에서 분리된 인공적인 환경에 기록을 놓이게 만들었다는 비판적 인식을 반영한다. 게다가 보관주의가 그 구체적 현실태에 있어 유명한 개인이나 기관의 문서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해 왔고, 여성, 비유럽인,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아카이브로부터 배제해 왔다고 연구자들이 비판하면서 이른바 ‘탈’보관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 또한 탈보관주의는 ‘기록연속체론’의 관점에서 기록을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논리적 실체로 간주한다. 논리적 실체로서 기록은 그것의 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전후 맥락을 포함한 체계적 가치를 연속해 보도록 독려하는 모델이다. 결국, 생태적 접근에서 탈보관주의는, 아카이브를 궁극적인 컨테이너가 아니라 인간 사회와 하나로 연결된 생명 자연 생태계를 기록의 궁극적인 컨테이너로 확장해 보면서, 다중적 실체로서의 아카이브를 강조하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다(Upward, 1996, 57; Moore, 2007, 114에서 재인용). 즉 이용자들이 전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려는 탈보관주의는 인간 기록의 영역으로 생명 환경 관계를 가져와 이 둘의 상호유기적 관계망을 강조하는 생태주의적 아카이브 구축에 적합한 프레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카이브의 소유권과 통제권에 있어서도, 탈보관주의는 환경과의 공생을 꾀하려는 올바른 소유권자들(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에게 기록의 운영을 맡김으로써 환경 기록관리의 비공개적이고 폐쇄적 속성을 수정하여 기록 공개와 기록 주권이란 시민권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자신의 관점으로 역사를 주체적으로 기록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칙을 생태 리빙 아카이브를 구성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로 꼽을 수 있겠다. 기록학계 내 공

공동체 아카이브는 그동안 인류세적 기록화 방식 즉 분류와 기술에 있어 배제와 억압의 정치를 극복하려는 생태 리빙 아카이브를 위해 유용한 접근법을 제공하리라 본다. 아카이브는 보관주의 관행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기록의 분류(범주화)와 조직화를 통해서 배제와 억압의 정치학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아카이브 기술표준은 지배적인 규범과 문화적 순응을 강화했고, 조직화는 타자화된 공동체 특히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공동체들의 정체성을 위한 그릇을 제공하지 못했다. 결국 기록화 방식이 인종주의, 식민주의, 권력의 남용, 경제적 부패, 성차별주의, 그리고 타자에 대한 체계적 배제에 기여해 왔다는 비판에까지 직면하기도 했다(Ramirez, 2015, 341). 권력을 강화하고 억압을 영속화하는 공식화된 ‘기관’으로서 아카이브에 대한 비판은, 기관 외부에서 아래로부터 자생하는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일반적으로 기록화 과정뿐만 아니라 최종 컬렉션에 대한 구성원 자치와 자율의 공동 통제권을 유지하는 특징을 지닌다. 즉 공동체 구성원들 스스로 신분 고하에 상관없이 기록관리의 모든 과정, 즉 정책, 평가, 조직 및 분류체계를 개발하는데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의 생태주의적 아카이브 구상에는 필연적으로 지역주민, 생태활동가, 생명 연구자, 기록 전문가가 공조해 지구생태 재앙의 기록화 작업을 모색하려는 일종의 재난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플랫폼이 유효하다. 특징의 환경 생태 문제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협업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 숨 쉬는 아카이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 문제 발생 시에 지역주민과 지역 생태활동가들의 민간 암묵지를 강조하면서 적정한 반-엘리트주의적 전략을 취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기록 과정의 위계적인 거버넌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생태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상호 개방적 논의와 참여를 독려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적 접근은, 직접적으로 인류세의 반(反)생명 현실에 대항하는 생태 구축

논리를 위해 중요한 기록 원칙이 될 수 있다. 즉 인류세 위기는 곧 지역 생태위기를 구현하기 위해 주로 지역 공동체적 반응을 요구하기에, 이를 위해 기록학 연구의 공동체 아카이브적 접근 방식은 생태 기록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기능할 수 있다(Flinn, 2007, 153; Stevens, Flinn, and Shepherd, 2010, 60). 또한 공동체 아카이브적 접근은 기존의 기록관리 방식이 가지고 있는 위계적인 관계망을 거부하고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관계망을 기반으로 기록의 원칙을 세운다는 점에서, 인간 중심이던 지역 생태 주체 집단에 비인간 생명들의 지위를 좀 더 평등주의 관점에 입각해 포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생태 리빙 아카이브 프레임의 확장을 위해 거론되어야 할 기록학 기초 개념으로 ‘정서의 아카이브(archive of feelings)’를 들 수 있다. 모더니즘적 기록 정의에 따르면, 문서화된 텍스트가 살아있는 역사, 즉 신체적 기록(bodily records)보다 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개별 신체와 기억 그 자체가 소외된 공동체의 이야기를 위한 저장소로 인식되면서 기록학 연구는 좀 더 ‘정서의 아카이브’에 대한 주목을 하게 됐다. ‘정서의 아카이브’는 기록화에 있어 여럿이 공유하는 복잡다기한 감정선을 중요한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몇몇 기록학 연구자들은 아카이브 내에서 정동, 감정, 정서, 느낌 등이 기록관리에 다원주의를 수용하도록 돕고,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위한 여백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정동(affection)’²⁾의 수용이 이른바 ‘감정적 정의(emotional justice)’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면서 아카이브와 정동이론의 교차점을 연구하는 경향

2) 여기서 정동이라는 개념은 정서로 주로 번역된다. 하지만 비인간 연구자들 사이에서 정동은 주로 자연 혹은 비인간 행위자에 대해 받는 인상이나 느낌을 나타낼 때 많이 쓰인다. 즉 마주침의 순간에 느껴지는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준수 2019, 82-85).

이 존재한다(Caswell, Michelle and Marika Cifor, 2016; Lee, J. A., 2016; Cifor, M. and Gilliland, A. J., 2016). '정서의 아카이브'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급진적 '공감'과 '돌봄'의 윤리를 통해 그동안 기록관리에서 가장 억압받고 소외되어온 다양한 주체들을 드러내고 이들을 기록화의 일부로 끌어와 감정적 유대 및 관계성을 구축하는 작업이다(Caswell, Michelle and Marika Cifor, 2016, 23-43). 이는 우리가 이전에 무관심했던 사회적 타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이에 기반한 아카이브 결정을 이끌도록 고무한다. 정서의 아카이브를 생태주의적으로 확장하면, 이른바 생명 절멸에 처한 동물 등 '생태 난민' 생명 종에 대한 공감의 정서와 인류세 내러티브에 대한 정동적 균형추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가 생긴다.

정서의 기록은 기록관리에 있어 지금까지 강조해온 의미에 대한 해석을 넘어, 느낌이나 감각을 통해 전해지는 못 생명과 교감하는 인간 '정동'의 중요성을 환기한다. 거대한 서사가 아니라 대상과 맺고 있는 (비인간 존재를 포함해서) 다양한 생명 종들과의 감각적 인지에 주목하면서, 특히 시각 중심의 인간 감각을 넘어 신체 전체를 통해 경험된 감각을 동원해 기록 재현과정 속에서 삭제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기록 위협을 최소화한다. 이렇듯 정서 기록은 기록 객체의 속성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방법론적 시도로 볼 수 있다(김준수, 2019, 82-83).

지금껏 아카이브는 종종 특정 가치 지양의 기록 보관소로 여겨지고 이러한 중립성의 표명은 덜 객관적인 입장과 정동 반응을 언급하는 기록에 대해 깊은 불신을 표명하는 경향이 컸다. 그럴수록 아카이브 보관에서의 규범, 불평등, 권력 특권에 침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서 아카이빙 접근은 아카이브가 지배 권력의 공간이자 기관으로 간주되고, 부정과 불평등을 생산·재생산한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을 적극 수용하면서 기록관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 매트릭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가령, 개인적 디지털 아카이브의 감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 동성애 아카이브의 친밀감 포착에 대한 연구, 또는 트라우마

적 사건 생존자들의 기록화를 위한 고통과 슬픔의 포용에 대한 연구 등에 있어서 감정적·정동적 요소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전의 기록관리 관행과는 다른 정동 기록화의 차별화된 특성을 필요로 한다. 즉 공감과 돌봄의 윤리에 입각한 기록학적 접근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지금껏 아키비스트들이 추구한 법적·도덕적 의무보다는 사회적 타자와의 직접적 공감에 관여할 정서적 책임과 교감을 강조한다. 특히, 인류세 위기 국면 정서의 아카이브는 이제까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외면했던 비인간(non-human)과 범 생명에 대한 정동 기록화에 일정 부분 단서를 주고, 그동안 주로 이뤄졌던 인간중심주의적인 기록 방식을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생태 아카이브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생태 ‘리빙’ 아카이브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한 세 가지 기록 이론적 특징들, 즉 ‘탈보관주의’, ‘공동체 아카이브’, ‘정서의 아카이브’는 인류세 위기 국면에서 우리가 고려하지 못했던 기록의 또 다른 생명 주체들에 대한 고려, 그들 생명 위기를 기록할 지역 공동체적 역할, 그리고, 이들 못 생명에 대한 인간과의 정서적 교감과 생태 이해라는 확장된 개념 틀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들 생태 기록학적 장점들을 통해 우리는 기록관리에 있어 생태주의적 전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꾀할 일종의 인식론적 가교들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2) 생태 ‘리빙’ 아카이브 구축 예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기록 사례

앞서 살펴봤던 생태 기록학적 개념들에 기초해, 이 장에서는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실체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 구제역 동물 감염병이라는 국내 환경재난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급격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구제역 동물 전염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비극적 환경재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재난 상황의 반복적 현상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350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대재앙 이후 거의 매년 구제역이 발생해 왔다³⁾. 2019년에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40만 마리에 가까운 돼지가 살처분 혹은 생매장될 정도로, 구제역은 지구 생태위기의 양상이자 지역적 환경재난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록된다. 구제역 문제는 다른 생명 종들에 대한 종 차별주의, 동식물 학대, 생명 실험 및 재생산 기술 사유화, 생명 종의 기업 농장형 수탈 체제 등과 깊숙이 연계되어 있다. 이에는 인간 외의 것을 열등의 생명체나 사물로 보고 범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인간의 것으로만 여겼던 ‘인간중심주의’의 오만이 도사린다. 일종의 시론적 사례 분석이 되는 이 장에서는, 지구생태 교란의 피해자이자 약자가 애초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아닌’ 비인간 종의 고통과도 맞물려 있음을 바로 구제역 감염병 사례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특히, 그 가운데 살처분 매몰지의 기록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생태주의적 기록의 관점에서 환경재난의 문제를 어떻게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문제 틀에서 다룰 수 있는지를 살핀다. 본 연구는 이의 대안적 시도로 구제역 관련 민간 기록화의 사례를 통해 이를 예시하고자 한다.

2011년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기록 현황을 보자. 공공 기록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대략적인 통계수치를 제공하는 수준인지라 동물 살처분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로 보기에는 너무 부실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등 13개의 광역단위 수준에서 매몰지 숫자만을 공개했고, 동물감염병 주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직접적인 매몰지 현황 정보가 아닌 구제역 (발생) 신고

3)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것은 2000년이였다. 일제강점기에 발생 사례가 있지만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이후 2002년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다. 그 이후로 잠잠했던 구제역은 2010년에 다시 발생했는데, 그해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발생했다. 당시 1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5,965마리, 4월 발생으로 약 5만 마리, 11월에는 345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문순희 2019, 82).

지 현황을 공개했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1). 이는 구제역 신고 일시를 포함해서 발생 장소(리 단위까지 공개), 축종, 규모(두수), 검사결과, 확진 후 조치사항 등의 정보를 포함했다. 농림부는 ‘부분공개’의 사유에 대한 근거로,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정보공개법 9조의 1항 3호를 적시하면서, 사유지 침해 우려가 있어 일반인은 물론 언론에도 매몰지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경우에는, 가축 매몰지 현황이 농림부 소관이라 관련 정보가 없어 농림부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송했다고 밝혔다. 정황을 추측컨대, 시민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기록이라 해봐야 광역단위 수준에서의 매몰지 수와 구제역 신고지 현황이 전부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정부의 구제역 매몰지 정보공개 불가 방침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시민사회 쪽 주장은 무엇보다 매몰된 엄청난 동물 사체가 부패해 그 침출수로 인근 토양과 하천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매몰지 위치를 공개해 매몰지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매몰지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를 인정하면서, 같은 해 2월 말 매몰지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책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매몰지 종합정보지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1).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행안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는 가축 매몰지 정보를 통합·연계해서 매몰지 위치, 가축 종류, 두수 등 매몰 당시의 관련 정보(매몰지 내역)뿐만 아니라 침출수 대응조치를 포함해서 매몰 이후에 발생하거나 조치한 사항(환경실태 내역)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가축 매몰지의 정확한 주소 등 시민이 알고자 하는 핵심정보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으로 일관했다. 현재 농림부에서 공개하는 구제역 매몰지 현황에 대한 기록은 2011년도와 동일한 수준

에서 구제역 발생 신고지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 수준에서는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몰지 주소를 포함해서 축종, 매몰 두수, 매몰 일자, 매몰방식 등 매몰지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아래 <표 1>은 한 지자체의 가축 매몰지 현황에 대한 예시이다.

<표 1> 지자체 가축 매몰지 현황 예시(광주광역시, 2017년 12월 말 기준)⁴⁾

| 구분 | 매몰지 내역 | | | | | | | 농가내역 | | | | |
|----|--------|-----|----------------|---------|---------|----------|-------|-------|----------|-------|----|-------------|
| | 시도 | 시군 | 니머지 주소 (지번) | 축종 | 매몰두수 | 매몰일자 | 매몰방식 | 발생 사유 | 발생일 | 검사 결과 | 주소 | 소멸시기 |
| 1 | 광주 | 서구 | 벽진길30 (벽진동413) | 오리, 오리알 | 101,135 | 15.5.26 | FRP | AI | 15.5.26 | 음성 | 좌동 | 소멸처리 (12.7) |
| 2 | 광주 | 광산구 | 신창동 1095-12 | 오리 | 10,298 | 15.9.23 | 호기성호열 | AI | 15.9.22 | 양성 | 좌동 | 소멸처리 (9.16) |
| 3 | 광주 | 서구 | 용두동 산27-1 | 닭, 오리 | 74수 | 15.11.28 | 호기성호열 | AI | 15.11.27 | 항체 양성 | 좌동 | 소멸처리 (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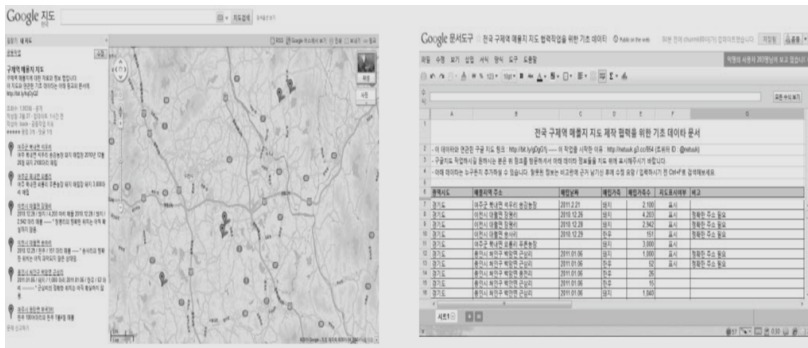
<표 1>을 보면 지자체들이 공개하는 매몰지 현황은 중앙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역시 매몰지 주소는 지번(광주시의 경우)이나 면·리(세종시) 또는 군·구(인천시) 단위까지만 공개하고 있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매몰지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기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민간에서의 기록화 작업은 생애 ‘리빙 아카이브’의 접근과 관련해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가령, 초기 정부의 공식 실태조사기록의 은폐 의혹으로 인해 2010년~2011년도의 대량 살처분 이후 네티즌들이 직접 나서서 온라인 구글 지도 플랫폼을 활용 제작한 ‘구제역 매몰지 지도’는 한마디로 누리꾼 ‘협업’ 프로젝트로 이뤄졌다. 전국 구제역 살처분 현황을 누구나 등록해 올리고 편집할 수 있는 온라인 지도 문서로 만들어 띄웠고, 해당 지역을 구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현재

4) <http://media.gwangju.go.kr:8080/view/1b983a2238106dcab54f8f9c5c6bd5e9.htm>

에도 전국에 걸쳐 209개 매몰지에 대한 기초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100여 개가 지도에 표시되고 있다. 구글 지도로 제작된 기초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몰지 주소의 경우 초기에는 농장 이름까지도 제공하는 상세주소도 보이지만, 지금은 대부분 리 단위까지 주소를 공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출처는 정보공개청구뿐만 아니라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의 언론 보도, 그리고 매몰지 주변 지역주민이 직접 매몰지를 방문·확인해서 사진을 첨부해서 주소를 올리는 경우 등도 있었다. 한마디로 구제역 현실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참다못한 전국 단위 구제역 발생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밟고 있는 자리에서 매몰지 현황을 온라인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면서 상호 ‘실천’적이고 ‘공동체주의’적 생태 실천을 행한 셈이다. 이는 어찌 보면 탈보관주의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충실한 아래로부터의 생태 기록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이 매몰지 지도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기록이 정확한 검수 과정을 거친 숫자 파악이라기 보단 눈대중의 불명확한 정보에 근거한 현장 파악인 경우가 많고, 궁극적으로 전체 온라인 기록의 업데이트 등 이를 책임질 주체가 없거나 데이터 관리의 연속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표 2〉 누리꾼들의 ‘구제역 매몰지 지도’⁵⁾와 ‘구제역 매몰지 기초데이터’⁶⁾



| 광역시도 | 행정자치부 주소 | 행정자치부 행정리 | 행정자치부 행정리 | 행정자치부 행정리 | 행정자치부 행정리 |
|------|-----------------|-----------|-----------|-----------|-----------|
| 경기도 | 안성군 안성읍 안성리 1-1 | 안성 | 2,380 | 6.0 | |
| 경기도 | 안성군 안성읍 안성리 1-1 | 안성 | 4,200 | 6.0 | 행정자치부 주소 |
| 경기도 | 안성군 안성읍 안성리 1-1 | 안성 | 2,900 | 6.0 | 행정자치부 주소 |
| 경기도 | 안성군 안성읍 안성리 1-1 | 안성 | 910 | 6.0 | 행정자치부 주소 |
| 경기도 | 안성군 안성읍 안성리 1-1 | 안성 | 1,800 | 6.0 | |
| 경기도 | 안성군 안성읍 안성리 1-1 | 안성 | 1,800 | 6.0 | 행정자치부 주소 |
| 경기도 | 안성군 안성읍 안성리 1-1 | 안성 | 120 | 6.0 | 행정자치부 주소 |
| 경기도 | 안성군 안성읍 안성리 1-1 | 안성 | 70 | 6.0 | 행정자치부 주소 |
| 경기도 | 안성군 안성읍 안성리 1-1 | 안성 | 10 | 6.0 | |
| 경기도 | 안성군 안성읍 안성리 1-1 | 안성 | 1,800 | 6.0 | |

가축 매몰 이후 환경 영향과 관련된 기록처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환경부 2017)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실태 기록을 생산·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사전공개된 지자체의 환경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침출수 발생 없음” 또는 주변의 수질 조사 등 최소한의 환경정보만을 간략히 담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실지 매립지 주변 토양의 오염도나 악취 등 가축 살처분으로 인한 환경비용분석이 제대로 기록되고 있지 않다. 가령, FRP⁷⁾ 등 플라스틱 밀폐 용기를 사용하여 매몰 처리한 경우, 아직 그 안전성을 완전히 검증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조사가 생략 가능하여 매몰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매몰 3년 후에는 환경 모니터링이 완전 소멸 처리되어, 이후 매몰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력 정보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가축 매몰지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7년이 지난 매몰지에서도 침출수가 계속 스며 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한국환경공단, 2011; 문선희, 2019, 80에서 재인용). 2011년 구제역에 살처분된 돼지가 침출수, 악취 등으로 2차 환경 피해 사례가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를 테면, 안성·이천 등에서는 침출수 문제로 인해, 전남 해남 지역은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다. 원주시의 경우를 보자. 구제역이 발생하자 해당 농가와 인근 농가의 돼지 1,500마리를 살처분, 인근 국유지에 매몰 처리했다. 하지만, 매몰지역 인근 주민들은 매몰지가 거주지역보다 고지대에 있는 데다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와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원주시

5) <http://bit.ly/gDgG1j>

6) <http://bit.ly/hqOyQ2>

7) FRP는 살처분 가축 매몰에 사용하는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 탱크를 뜻한다.

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3년이 지나면 통상 매몰지 관리가 해제되어 해당 토지가 농경지로 재사용⁸⁾되면서 토지 오염에 의한 농작물의 2차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산 채로 집단적으로 묻혔던 동물의 사체가 흙 위로 방치되고 매몰지 침출수도 계속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들이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환경실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매몰지 조성에 따른 2차 환경오염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경우가 흔하다. 이에 사회적으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론 환경단체들은 ‘매몰지 내역’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실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생태주의적 기록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듯 살처분이라는 인간 활동의 ‘행위성’과 그것의 최소 수준의 설명책임성 제공에만 기록의 목적을 두고 있어, 살처분과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된 생명 가치 종들, 즉 자연환경과 동물(의 관계성)에 대한 기록은 현재 오로지 통계수치로만 남는다. 자연환경은 단지 침출수 유무와 수질 검사상의 수치만으로 기록되며, 가축들은 농장주에게 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로 통계 수치(매몰두수 등)로만 기록 속에 존재한다.

형식화된 매몰지 기록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한 시각 미술 작가의 시선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작가는 가축 살처분 매몰지에서의 생태 변화를 2년 이상 추적하고 이를 기록해, 일종의 그만의 민간 기록화 작업을 수행했다. 문선희 작가는 이를 묶어 『문다』 사진 에세이집(2019)을 냈는데, 이 시각 생태 보고서는 본 연구 주제인 생태 ‘리빙’ 아카이브적 접근과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실지문 작가는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대처법, 살처분 방식에 대한 생명주의적 관점에서 그만의 생동하는 정서 기록을 남기고 있다. 흥미롭게도 가축들의 집단 죽음 이후의 환경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그만의 독특한 작

8)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4조는 가축 사체를 묻은 토지는 3년간 발굴(사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적 감수성을 갖고 생태 기록을 시각화해 남겼다. 그녀는 2년 동안 매몰지 일 백여 곳을 찾아다니며 전국 농가를 생지옥으로 만든 '구제역'이 남긴 씻기 힘든 트라우마들을 겪는 다양한 생명 행위자들을 소환해서 기록했다. 지금껏 기록의 대상이 아니었던 땅속 깊숙이 봉인되었던 동물과 땅의 고통을 사진 기록으로 채집해 기록했다. 농가에서 자식처럼 키운 가축들을 한꺼번에 강제로 '처분'해야 했던 농장주, 살처분 현장으로 내몰려 도살을 집행했던 공무원, 이에 함께 이끌려 작업했던 가난한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의 트라우마까지도 소환해냈다.

작가는 매몰지를 여러 번 방문할 때마다 변화된 그 모습과 매몰지에서 풍겼던 냄새와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 즉 정동을 오롯이 사진과 이야기로 담아 풀어냈다. 매몰지를 덮고 있는 곰팡이들, 메마르고 짝짝 갈라진 땅, 그 틈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동물의 체취, 무엇보다도 매몰지를 밟았을 때 '물컹물컹한' 땅(문선희, 2019, 59-61) 등에 대한 작가의 기록들은 가축 살처분 매몰로 고통받는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질감과 느낌을 그대로 소환하는 힘을 지녔다. 더 나아가 매몰지 촬영을 하면서 품었던 살처분 방식에 대한 의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사진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우리에게 살처분이 남긴 상처와 치유를 전달한다. 그는 “참혹하게 죽어간 동물들, 신음하는 대지, 그 땅에 갇들여 고통받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상처 주고 동시에 상처 입은 우리들의 ‘인간성’” 치유를 위한 일종의 제의로 사진전을 함께 열었다고 밝히고 있다(문선희, 2019, 149). 결국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살처분 국가 정책에 대한 그의 작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성찰적 감각은 기록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정동적 관계에 기초한 기록의 윤리적 책임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실지 그의 작업은 단순히 감성적 호소에 기댄 기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축 전염병과 살처분 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정부에서 발간하는 구제역 백서를 비롯해서 농림부의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그

리고 역학조사위원회의 분석보고서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들을 참조하고 있어 조사기록의 가치까지도 함께 지니고 있다.

종합해 보면, 누리꾼들의 구제역 관련 기록의 자발적 수집과 온라인 공개, 그리고 한 작가의 정동적 시선으로 기록한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민간기록 사례는, 생태위기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록 관행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생태 기록의 구성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 아카이브’의 생성주의적 기록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환경 재난 기록의 주체인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지역주민, 시민활동가, 현장르포작가, 예술 작가 등), 전문가·학자(감염사회학자, 전염병 연구자, 생물학자, 방역 전문가) 등이 생태 기록의 협력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공동체 아카이브의 생태주의적 플랫폼 구성에 있어서 누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들 민간 생태 기록들은 이제까지 공식 기록들이 등한시했던, 매몰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 매몰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궁극적으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와 구제역 살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사실상 이는 매몰지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을 뿐 공개하지 않는 정부의 ‘보관주의’ 문제점을 반박하며, 생태 문제의 적극적 실천 주체로서 지역 시민들의 협력적 ‘공동체 아카이브’ 구성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동물 대량 살처분 이후 죽임을 당한 동물과 이들이 깊숙이 봉인된 대지의 신음에 대한 작가의 감성적 기록은 ‘정서의 아카이브’ 논의와 밀접히 관련된다. 상호 감정적 유대를 통한 공감과 정서의 기록이 다른 객체의 경험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비인간 존재에 대한 기록화와 관련해서 종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정서적으로 개방함으로써 함께 연결된 존재로서 생명의 그물망을 통해 좀 더 비인간 존재의 비극에 다가서도록 독려한다.

아키비스트 역할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생명들이 강제로 파묻힌 땅에 대한 목격자이자 증언자이자 땅의 변화를 ‘감정적 정의’에 입각해서 기록한 기록자로서 ‘생태주의적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민간 생태 기록의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비록 민간 생태 기록이 비체계적이고 아마추어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지금껏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우리의 기억방식이 가지는 인간 중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중심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게 만들면서 오히려 아키비스트를 새로운 생태주의적 액티비스트로서 재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5. 나오는 글

코로나19 여파로 인간의 문제로 다들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도, 계속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천만 마리의 돼지,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한 신문 기사는 산더미처럼 쌓인 닭 사체들을 분쇄기에 넣고 있는 살처분 작업자들의 사진과 함께, 인간이 아니라고 이유로 수많은 생명을 ‘쓸어버리는’ 방역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경향신문〉 2021. 01. 31.). 이렇듯 구제역과 AI가 발생할 때마다 행해지는 살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 우리 정부가 살처분을 구제역 박멸을 위한 기본 모델로 채택한 이래, 동물 단체를 비롯해서 환경주의자들은 살처분 정책 어디에도 생명에 대한 배려나 비인간 생명의 존중이나 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없음을 지적한다.

인류세 위기로 배태된 생명 도살의 현장에 대해, 기록학계는 이제 자연과 생명에 대한 기록자의 윤리적 책임을 되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살처분 행위만이 반생명주의적이라 볼 수 없고, 그 살처분을 기록하는

기존의 공공 기록관행이 죽어가는 자연과 생명에 대한 비윤리에 기초해 있음을 지적하고자 했다. 캔디스 로웬(Candace Loewen)은 이미 20년 전에 “우리는 인간의 활동과 제도들을 문서화하는 데 있어 너무 ‘인간중심적’이었다”고 지적했다(Loewen, 1991, 90-91). 로웬의 아카이브에 대한 비판은 기록학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뼈아픈 언급이다. 로웬이 지적한 ‘인간예외(중심)주의’를 과장됐다고 믿는 이들에게, 이 연구는 다시 한번 근대 기록관리의 관행을 뒤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생태주의에 입각한 ‘리빙’ 아카이브는 인간을 생태계의 특권자로 간주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기록관리에 있어 결국 인간이 주된 행위 주체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지금으로선 인간 아닌 동식물이나 기계가 기록을 직접 남길 수는 없다. 비인간 생명에 대한 주목은 결국 기록을 보다 생명주의적 방식으로 사유하고 확장할 것을 요구하는 외침이다. 개별 기록의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나 도구적 가치(예를 들면, 증거적 가치 등) 너머 생태 공생주의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모색이다. 이를 통해 우린 전통적 인간 사회 생태뿐만 아니라 생명들이 토대를 둔 자연 생태와의 민주적 관계성 속에서 기록을 확장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봤던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의 사례는, 결국 정부 영역에서 진행되는 현행 구제역 관련 기록화 방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동시에 생태 리빙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구제역 민간 기록화 방식의 생명주의적 장점을 통합하려는, 일종의 ‘생태 아카이브’ 구성의 방법을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비록 거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환경 재난 기록에서 크게 간과했던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 종의 역사 내러티브에 대한 새로운 다층적이고 생태 관계망적 현실에 대한 기록 의무와 생태주의적 기록의 관점을 제안하고자 했다. 우리 지구의 ‘심층시간(deep time, 지질학적 시간)’의 견지에서, 적어도 근대 아카이브 권력을 통해 타자들을 배제하고 억압해온 방식에 대한 비판적 제고만큼이나 이제 동시대 인

간이 비인간 생명을 어떻게 기록의 영역으로 포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생태 현실 개입을 위한 기록 실천적 함의를 던진다고 본다. 이는 동시대 기록학이 인류세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위상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생태 ‘리빙’ 아카이브는 인류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환경 실천적 방법론적 구상으로 볼 수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2017). 가축 매몰지 현황 예시(2017년 12월 말 기준).
<http://media.gwangju.go.kr:8080/view/1b983a2238106dcab54f8f9c5c6bd5e9.htm>
 (2021.01.15. 내용 확인)
- 김준수 (2019). 인류세 시대의 국가 공간 다시 읽기. 『문화과학』, 97, 81-102.
- 김환석 (2018).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신유물론. 『지식의 지평』, 25, 81-89.
- 무어, 제이슨 W (2020). 김효진 옮김.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갈무리.
- 문선희 (2019). 『문다』. 책공장터불어,
- 송윤경 기자. 「동물 대학살 AI방역 이대로 괜찮나」, 경향신문, 2021.01.13.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2101310749001
- 송은주 (2020). 포스트 휴머니즘과 인류세. <https://horizon.kias.re.kr/13436/> (2021.01.31. 내용 확인)
- 이광석 (2019). ‘인류세’ 논의를 둘러싼 쟁점과 테크노: 생태학적 전망. 『문화과학』, 97, 22-54.
- 이경래 (2015).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5-44.
- 이윤희, 이영학 (2017).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27-49.
- 전국 구제역 매몰지 기초데이터. <http://bit.ly/hqOyQ2> (2021.02.10. 내용 확인)
- 전국 구제역 매몰지 지도. <http://bit.ly/gDgG1j> (2021.02.10. 내용 확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11).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GIS등 첨단 IT 기술 총동원: 공간정보 기반의 매몰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sBcdahztTTzHYA3tOOdsK5OH2VY3kCqdPn4aryBREkD7ZH1fgckaMlrAwq1LeTsl,meweb2vhost_servlet_engine1?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MasterId=1&boardCategoryId=&boardId=176835&decorator= (2021.01.14. 내용 확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1). 구제역 매몰지 현황, 정부는 왜 공개를 못 하나?!!.

<https://www.opengirok.or.kr/2254> (2021.01.27. 내용 확인)

한국환경공단 (2011). AI 발생 주변 지역 환경영향 조사 최종 보고서.

해러웨이, 도나 (2020). 김상민 옮김. 인류세, 자본세, 대농장세, 틀루세: 친족만들기. 『문화과학』, 97, 162-173.

환경부 (2017).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

<https://www.me.go.kr/gg/web/board/read.do?menuId=2246&boardId=810850&boardMasterId=228&condition,hideCate=1> (2021.01.17. 내용 확인)

Adler, Melissa and Lindsey M. Harper (2018). Race and Ethnicity in Classification Systems: Teaching Knowledge Organization from a Social Justice Perspective. *Library Trends*, 67(1), 52-73.

Almeida, Nora and Jen Hoyer (2020). The Living Archive in the Anthropocene. *Journal of Critical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3(1), 1-38.

Brophy, Sarah S. and Elizabeth Wylie (2008). *The Green Museum: A Primer on Environmental Practice*. Lanham,MD: AltaMira Press.

Caswell, Michelle and Marika Cifor (2016). From Human Rights to Feminist Ethics: Radical Empathy in the Archives. *Archivaria* 81, 23-43.

Cifor, M. & Gilliland, A. J. (2016). Affect and the archive, archives and their affects: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Archival Science* 16(1), 1-6.

Cook, Terry (1997).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Spring), 17-63.

Cvetkovich, Ann (2003). *An Archive of Feelings Trauma, Sexuality, and Lesbian Public Cultures*. Duke University Press.

Ehrenfeld, John R. (2008). *Sustainability by Design: A Subversive Strategy for Transforming Our Consumer Cultur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Flinn, Andrew (2007).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8(2), 151-176.

- Hall, Stuart (2001). Constituting an Archive. *Third Text*, 15(54), 89-92.
- Henk, Mandy (2014). *Ecology, Economy, Equity: The Path to a Carbon-Neutral Library*. Chicago: ALA Editions, an imprint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018). *Global Warming of 1.5°C: An IPCC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related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pathways,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https://www.ipcc.ch/sr15/> (2021.02.08. 내용 확인)
- Ketelaar, E. (2009). A living archive, shared by communities of records. In J. Bastian & B. Alexander (Eds.),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pp.109-132). Facet. doi:10.29085/9781856049047.009.
- Lee, J. A. (2016). "Be/longing in the archival body: Eros and the "endearing" value of material lives", *Archival Science*, 16(1), 33-55.
- Linden, Jeremy, James Reilly, and Peter Herzog (2012). Research on Energy Savings Opportunities in University Libraries. *Library Hi Tech*, 30(3) <https://doi.org/10.1108/07378831211266537>
- Loewen, Candace (1991). From Human Neglect to Planetary Survival: New Approaches to the Appraisal of Environmental Records. *Archivaria* 33(Winter), 87-103.
- Mayer, Rebecca, Shannon Struble, and Phyllis Catsikis (2015). Sustainability: A Review, *Preserving Our Heritage: Perspectives from Antiquity to the Digital Age*, ed. Michèle Valerie Cloonan. Chicago: ALA Neal-Schuman.
- Moore, Erik A. (2007). Birds of a Feather: Some Fundamentals on the Archives-Ecology Paradigm. *Archivaria* 63(Spring), 103-119.
- Padfield, Tim, et al. (2014). The Climate Control of the Arnamagnæan Archive. <http://www.conservationphysics.org/arna/arnamagnæan-CC16.pdf> (2021.01.17. 내용 확인)
- Pendergrass, Keith L., Walker Sampson, Tim Walsh, and Laura Alagna (2019). Towar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igital Preservation. *The American Archivist*, 82(1), 165-206.
- Ramirez, Mario (2015). Being Assumed Not to Be: A Critique of Whiteness as an Archival Imperative. *The American Archivist*, 79(2), 339-356.
- Rudy, Susan (2018). The State of Knowledge about "Living Archives, New Media Archives." <http://sustainableknowledgeproject.blogspot.com/2010/10/state-of-knowledge-about-living.html> (2021.02.08. 내용 확인)

- Sheffield, Rebecca T. (2016). More than Acid-Free Folders: Extending the Concept of Preservation to Include the Stewardship of Unexplored Histories. *Library Trends* 64(3), 572-584.
- Stevens, Mary,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2010).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1-2), 59-76.
- Tansey, Eira and Rob Montoya (2020). Libraries and Archives in the Anthropocene. *Journal of Critical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3(1), 1-9.
- Taylor, Hugh A. (1984). Information Ecology and the Archives of the 1980s. *Archivaria* 18(January), 25-37.
- Upward, Frank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 Part One: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Archives and Manuscripts* 24(2), 268-285.